

우노, 7호

즐겁게 놀이하고 표현하며 미술과 걸어요

< 우리나라 > 월간 계획안

<p>1주 납작미술</p>	<p>예쁜 치마 비단 치마</p> <p>미술 작품을 통해 한복의 명칭과 입는 순서를 알 수 있어요. 남자는 속바지, 바지, 버선, 데님, 저고리,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 순으로 한복을 입고 여자는 속바지, 속치마, 버선, 치마, 저고리 순으로 한복을 입어요.</p>	
<p>2주 뚝딱미술</p>	<p>태극기 휘날리며</p> <p>태극기는 흰색의 바탕에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흰 바탕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붉고 푸른 태극은 양과 음의 조화에 의해 함께하고 발전한다는 진리를, 하늘, 땅, 물, 불을 나타내는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p>	
<p>3주 반짝미술</p>	<p>우리 마을을 지켜요</p> <p>통나무나 돌에 사람의 얼굴 모양을 새겨 마을이나 길가에 세워뒀던 장승은 여러 가지 역할을 했어요. 지역간의 경계를 표시하기도 했고,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 역할을 하기도 했고,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p>	
<p>4주 가치미술</p>	<p>청사초롱을 밝혀요</p> <p>청사초롱은 방 안에 고정시켜 사용하던 등잔이 아니라 어두운 밤길을 밝히고 들고다니는 등불의 의미가 강해요. 요즘의 물건으로는 랜턴이나 전조등같은 물건이에요. 어두운 길을 밝혀 손님을 환영하고 바른 길로 안내하는 환영과 배려의 마음이 담긴 청사초롱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이미지 중 하나예요.</p>	

1주
남작미술

예쁜 치마 비단 치마

QR코드



예쁜 치마 비단 치마

활동목표

- 한복에 관심을 갖고, 한복을 표현할 수 있다.
- 물감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물감의 번짐과 색의 혼합을 관찰할 수 있다.

주요 미술 표현 기법

- 번지기

준비물

원아용 재료 : 화지, 별지, 냅킨 / 수업 준비물 : 풀, 물감, 스포이트 또는 붓, 물티슈



생각을 열어요 (도입)

한복에 대해 알아보고 이야기 나눠요.

- 한복은 언제 입는 옷인가요?
- 여자와 남자의 한복은 각각 어떻게 생겼나요?
- 옛 어른들은 한복을 어떻게 염색했을까요?
- 한복의 색깔을 자연에서 찾아볼까요?

탐색하고 표현해요 (전개)

* 만드는 방법은 상단의 QR 코드를 꼭 참고해 주세요.



재료를 탐색하고, 이야기 나눠요.

- 화지에 무엇이 그려져 있나요?
- 티슈는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요?
- 티슈를 구기고 날려보아요.
- 티슈의 무게는 가볍나요 무겁나요?



화지에 별지와 냅킨을 붙여요.

- 화지의 흰 여백에 넓게 풀칠을 해요.
- 화지에 냅킨을 구기고 붙여요.
- 냅킨 위에 별지를 붙여요.
- 냅킨이 한복의 치마모양 같아졌나요?



물감을 이용해 냅킨을 꾸며요.

- 물감을 냅킨 위에 떨어트려 아름다운 한복치마로 만들어요.
- 물감이 퍼지는 모습을 관찰해요.

Tip: 물감의 농도가 얇아질수록 색의 퍼짐을 쉽게 관찰할 수 있고, 물감의 농도가 짙을수록 선명한 발색을 관찰할 수 있어요.

생각을 나누어요 (마무리)



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해요.

- 우리 교실 어디에 작품을 걸어두면 좋을까요?
- 내가 꾸민 한복과 친구가 꾸민 한복의 색을 관찰해 볼까요?
- 물감이 퍼지고 섞이며 색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 해 보아요.

납작 포인트

미술 작품을 통해 한복의 명칭과 입는 순서를 알 수 있어요. 남자는 속바지, 바지, 버선, 데님, 저고리, 조끼, 마고자, 두루마기 순으로 한복을 입고 여자는 속바지, 속치마, 버선, 치마, 저고리 순으로 한복을 입어요.

납작 더하기 팁 (더욱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어요!)

- 냅킨을 짧게 잘라서 붙이거나 길게 겹쳐 붙여 한복의 길이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 색한지나 비즈스티커 등을 이용해 장옷, 노리개, 비녀 등을 표현할 수 있어요.

2주
독막미술

태극기 휘날리며



활동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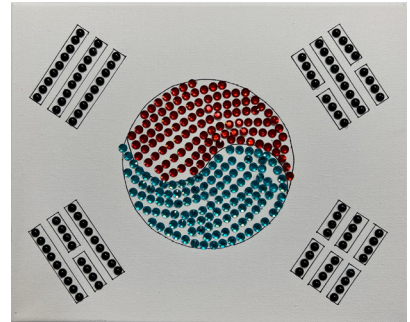
-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를 관찰하고, 태극기의 명칭을 알 수 있다.
- 비즈스티커를 이용해 태극기를 꾸미며 소근육 조작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주요 미술 표현 기법

- 붙이기

준비물

원아용 재료 : 캔버스, 비즈스티커 3색 / 수업 준비물 : 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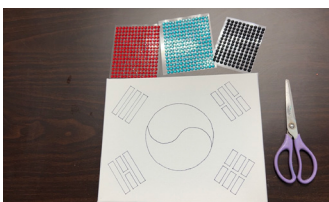
생각을 열어요 (도입)

태극기를 관찰하고, 명칭을 알아요.

- 태극기의 모습을 살펴봐요.
- 태극기에는 어떤 색깔이 사용되었나요?
- 태극의 붉고푸른 둥근 모양은 태극, 까만 선들은 건곤감리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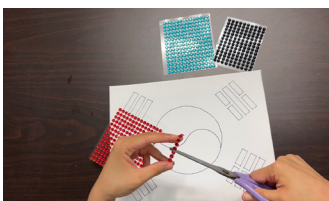
탐색하고 표현해요 (전개)

* 만드는 방법은 상단의 QR 코드를 꼭 참고해 주세요.



재료를 탐색하고, 이야기 나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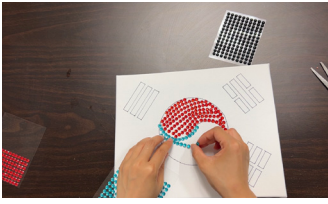
- 캔버스에 무엇이 그려져 있나요?
- 비즈스티커를 손으로 만져보니 어떤 느낌이 드나요?



비즈스티커를 가위로 잘라요.

- 스티커를 붙이기 전 비즈스티커를 듬성듬성 가위로 잘라줘요.

Tip: 교사가 미리 준비해 줄 수 있어요. 유아의 가위 사용 시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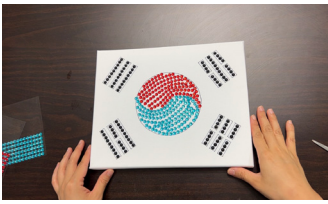


비즈스티커를 이용해 캔버스를 꾸며요.

- 태극기의 위치에 맞는 비즈스티커를 찾아요.
- 비즈스티커를 붙여 태극기를 꾸며요.

Tip: 작업시간을 넉넉히 주고 작업해 주세요.

생각을 나누어요 (마무리)



작품을 감상하고 전시해요.

- 태극기를 만들고 나니 어떤가요?
- 태극기를 만들 때 어떤 점이 어려웠나요?
- 태극기를 어디에 전시하면 좋을까요?

똑딱 포인트

태극기는 흰색의 바탕에 태극 문양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흰 바탕은 밝음과 순수,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붉고 푸른 태극은 양과 음의 조화에 의해 함께하고 발전한다는 진리를, 하늘, 땅, 물, 불을 나타내는 4괘는 태극을 중심으로 통일의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똑딱 더하기 팁 (더욱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어요!)

- 태극기를 태극기 봉에 달고 계양의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 색종이를 이용한 모자이크 활동으로 확장시켜 태극기를 꾸밀 수 있어요.

3주 반짝미술

우리 마을을 지켜요

QR코드



우리 마을을 지켜요

활동목표

- 장승의 생김새를 관찰하고, 나만의 장승을 꾸밀 수 있다.
- 장승의 역할을 알고, 장승을 우리 반 필요한 곳에 세워둘 수 있다.

주요 미술 표현 기법

- 재료를 이용한 조형활동

준비물

원아용 재료 : 화지, 상자 전개도 / 수업 준비물 : 풀, 그리기 도구



생각을 열어요 (도입)

장승에 대해 알아보고 이야기 나눠요.

- 장승을 본 적이 있나요?
- 장승의 얼굴을 보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상상해 봐요.
- 장승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승의 무서운 표정을 보고 나쁜 일이나 전염병들이 멀리 도망간다고 믿었어요.

탐색하고 표현해요 (전개)

* 만드는 방법은 상단의 QR 코드를 꼭 참고해 주세요.



재료를 탐색하고 이야기 나눠요.

- 화지에 무엇이 그려져 있나요?
- 전개도를 접으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화지를 색칠해요.

-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 화지를 색칠해요.



상자를 만들고, 상자를 꾸며요.

- 전개도를 접어 상자를 만들어요.
- 화지를 뜯어 상자에 붙여요.

Tip: 화지를 붙였을 때 완성 예상도를 미리 보여주면 쉽게 작업할 수 있어요.

생각을 나누어요 (마무리)



우리 반에 장승을 세워두고 전시해요.

- 장승을 보고 물려갔으면 하는 전염병이나 나쁜 일들이 있나요?
- 장승은 우리 반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반짝 포인트

통나무나 돌에 사람의 얼굴 모양을 새겨 마을이나 길가에 세워뒀던 장승은 여러 가지 역할을 했어요. 지역간의 경계를 표시하기도 했고,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 역할을 하기도 했고,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의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반짝 더하기 팁 (더욱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어요!)

- 외부활동 시 나무기둥에 종이를 붙이고 장승의 얼굴을 그려보아요.
- 나무손가락 등에 그림을 그려 꼬마 장승을 만들어 보아요.

4주
가치미술

청사초롱을 밝혀요



활동목표

- 청사초롱에 대해 알아보고, 전통혼례를 흥내내며 놀이해요.
- OHP필름의 특성을 이용해 색의 혼합을 알아보고, 청사초롱을 꾸며요.

주요 미술 표현 기법

- 재료를 이용한 조형 활동

준비물

원아용 재료 : 상자전개도, OHP화지, 화지, 우드스틱, 고무줄 철팁, 양면테이프
/ 수업 준비물 : 풀



생각을 열어요 (도입)

청사초롱에 대해 알아보아요.

- 청사초롱은 옛날 사람들이 행사나 결혼식에 사용하던 등불이에요.
- 붉은색 푸른색 천 속에는 촛불이 켜져있어 어두운 밤에 길을 밝혀줘요.
- 지금은 촛불 대신 무엇이 길을 밝혀주나요?

탐색하고 표현해요 (전개)

* 만드는 방법은 상단의 QR 코드를 꼭 참고해 주세요.



재료를 탐색하고 이야기 나눠요.

- 전개도를 접으면 어떤 모양의 상자가 나올까요?
- OHP화지로 눈을 가리고 보면 우리 교실이 어떻게 보이나요?



OHP화지를 붙이고, 상자를 만들어요.

- 전개도의 뚫린 부분에 맞춰 OHP화지를 붙여요.
- 전개도의 옆 날개 부분에 양면테이프를 발라 전개도를 접어주고, 전개도로 뚜껑을 덮어요.

Tip: ohp의 위아래 방향을 확인하고 붙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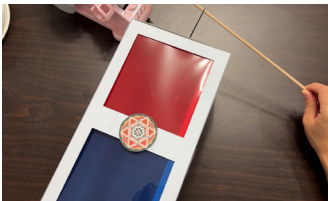
미리 전개도에 빨간색, 파란색을 체크해 주면 아이들이 쉽게 작업할 수 있어요.



청사초롱을 꾸미고, 막대를 걸어 완성해요.

- 청사초롱의 바깥 면에 화지를 붙여 꾸며요.
- 청사초롱의 윗면 구멍에 고무줄 철팁을 끼워요.
- 우드스틱을 고무줄에 걸어 청사초롱을 완성해요.

생각을 나누어요 (마무리)



청사초롱을 이용해 전통 결혼식을 흉내내고 놀이해요.

- 신랑신부가 될 친구를 정해요.
- 신랑신부가 지나갈 길에 청사초롱을 들고 서 보아요.
- 청사초롱 길을 지나 신랑신부가 서로 절을 하고 결혼하는 흉내를 내 보아요.

가치 포인트

청사초롱은 방 안에 고정시켜 사용하던 등잔이 아니라 어두운 밤길을 밝히고 들고다니는 등불의 의미가 강해요. 요즘의 물건으로는 랜턴이나 전조등같은 물건이에요. 어두운 길을 밝혀 손님을 환영하고 바른 길로 안내하는 환영과 배려의 마음이 담긴 청사초롱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이미지 중 하나예요.

가치 더하기 팁 (더욱 재미있게 활동할 수 있어요!)

- OHP필름지 위에 셀로판지를 물로 붙이고 떼어내며 색의 혼합을 관찰해요.
- 청사초롱에 긴 실을 걸고 우리 교실 앞 복도에 붙여 우리 원을 꾸며보아요.